

서 평

John Gerard Ruggie. 1996. *Winning the Peace: America and World Order in the New E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37+xiv.

미국외교정책의 국제주의와 다자주의

백창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I

새 천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첫해에 인류는 미증유의 테러와 보복전쟁을 목도했다. 문명간의 충돌이든, 문명대 야만의 충돌이든, 혹은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도전과 응징이든, 최근의 사태는 국제분쟁과 국제질서의 성격이 급변해가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당연한 일이지만, 냉전 종식 이후 지난 10여 년간 국제질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갈등의 가능성과 국제질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붕괴, 해체됨으로써 동서간의 분쟁 위험은 사라진 반면,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 발칸반도, 아프가니스탄과 인도-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국지적 갈등과 분쟁은 빈발하고 있다. 냉전 시기 동안 이데올로기와 양극질서에 의해 가려져 있던 갈등들-전형적인 국가이익간의 충돌은 물론, 인종간, 종족간의 대결과 종교간의 대립 등-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국제관계의 전면에 부상하여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개방화와 자유화가 전세계로 확대되는 반면, 유럽과 미주 및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주의적 움직임도 활발해져 오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온 국내적, 국제적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해 정치적 저항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조만간 국제질서의 격변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 요인이다.

이같이 유동적인 국제질서의 장래에 관건이 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다. 물론 국제질서의 모습이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성격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도 이는 양극질서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지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지표들로 볼 때도 미국의 힘의 우위는 자명하다. 미국경제의 규모는 가장 근접한 경쟁국보다 40퍼센트나 더 크고, 1980년대의 천문학적 재정적자도 사라졌다. 냉전 이후 삭감되었다고는 하나, 미국의 군비 지출은 하위 6개국의 군사비를 합한 정도의 규모이며, 유일하게 전세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Walt, 2000: 64). 또한 과학기술 수준과 R&D 투자규모, 첨단산업의 생산성, 고등교육의 수준에 있어서 미국은 선두에서 있으며, 미국적 가치와 문화는 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 가히 미국에 의한 ‘단극의 시기’(Unipolar Moment)라고 칭할 만하다(Krauthammer, 1990). 따라서 국제질서에 미칠 미국의 영향은 이차대전 직후 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그리고 잠재적인 국제문제들의 해결에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역적 갈등과 분쟁에서 미국은 직·간접적 당사자이자 중재자이고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국제경제적 불안정의 해결에서부터 국제적인 환경 보전과 개선,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산, 그리고 핵 확산 방지에 이르기까지 국제문제의 중대한 영역들 대부분에서 미국은 핵심적 행위자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지정학적 문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미국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변화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질서의 성격과 미국의 위치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이 추구되지 않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은, 장래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국제적 역할보다는 국내적 고려를 중시하고, 국가주권의 일부분을 양도하기보다는 국제협력을 거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유럽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정학적 특성, 광대한 내수시장에 기반을 둔 자립경제적 성격, 그리고 다문화적 특성 등이 이러한 미국적 특성을 야기해 왔다. 이차대전이 발발한 뒤에야 미국의 국제주의적 외교정책이 확고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경제의 국제화와 세계 각 지역에 걸친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고려할 때,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곧 미국을 고립주의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협약이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적 특성이 강화되고 국제주의적 외교정책이 후퇴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국제질서의 성격과 미국의 위치에 부합되는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을 단순히 연역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제질서의 장래를 전망하기 위해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필수적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추구될 것인지는 국제관계학계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II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냉전이 마감될 당시부터 미국의 학계와 대외정책 네트워크에서도 중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라 미국의 안보적, 경제적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전략과 대외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시(George Bush)가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선언하던 당시, 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국방 차관인 월포비츠(Paul Wolfowitz)는 단극 질서의 전제 하에 새로운 세계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유지하기 위해, 선진 공업국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경쟁국들도 전세계적 역할이나 지역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탈냉전 국제질서를 단극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기초를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에 설정했던 것이다.

반면 많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단극적 질서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며, 수년 혹은 10여년 내에 다극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미 이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Waltz, 1979; Mearsheimer, 1990; Mearsheimer, 1992). 따라서 단극적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국들의 영향력 추구를 억제하려는 대외정책은 무모하고 파탄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Layne, 1993). 이들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월츠 역시 200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생소한 역할, 즉 다른 강대국들을 상대하고 공존하는 역할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Waltz, 1993: 72). 독일과 일본이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고, 러시아는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유지될 경우 중국도 이 지위에 오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가장 현명한 정책은 전세계적 개입을 축소하고 다극적 질서에 대비하는 것이 된다.

세력균형의 이론적 전제하에 다른 설명들도 시도되었다. 하나는 현재 미국의 지위가 단극성의 엄밀한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걸프전이나 코소보 전쟁에서 보듯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국들의 참여 없이 미국이 자신만의 능력으로 의지를 관철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헌팅턴(Huntington, 1999)은 걸프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단극성과 다극성이 병존하는 ‘단극-다극체제’(uni-multipolarity)로 보며, 장래의 국제질서가 지역적 문명권들간의 다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Huntington, 1996). 따라서 단극의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채 비용을 강제하며 전세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고독한’ 초강대국의 신세를 초래할 뿐이며(Huntington, 1999), 문명권간의 충돌을 대비해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된다.

다른 하나는 위협균형론(balance-of-threat theory)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위

협균형론은 국가들이 단순히 힘의 분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상대방의 공격적 의도 역시 국가의 대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다(Walt, 1987). 따라서 상당히 비대칭적인 힘의 분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이 상대국들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한 대항과 도전이 초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10년 뒤에도 미국의 단극적 질서가 유지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일본 및 유럽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prudent) 정책이 계속되면 이러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Mastanduno, 1997).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힘의 분포나 균형보다는 국제 제도와 이를 통한 국가 간 협력과 상호의존의 영향을 중시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이차대전 직후 미국 주도 하에 서방진영 내에 수립된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질서 때문이다. 이를 구현한 제도가 지속되며 국가들의 행태를 구속하기 때문에, 비대칭적 힘의 분포와 무관하게 미국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Ikenberry, 1999).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다자주의적 제도들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러기(John Gerard Ruggie)의 『평화의 쟁취』(*Winning the Peace*)는 이러한 논쟁 속에서 자유주의적 시각을 대표한 저작이다. 『다자주의의 중요성』(*Multilateralism Matters*)과 같은 이전의 저작에서와 마찬가지로, 힘보다는 국제제도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쟁취』는 다음 몇가지 점에 있어서, 단순한 자유주의적, 혹은 다자주의적 주장을 넘어서서 러기의 탁월한 통찰력과 분석력을 잘 드러내 준다.

첫째,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의 분포로부터 도출되는 단순한 연역적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 비해, 러기는 20세기 미국 외교정책이 변화되어 온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탈냉전기 미국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분석의 결과, 미국 외교정책이 대전환을 이룬(혹은 이루지 못한) 원인이 규명되고, 이 원인이 다시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화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경우는 두 번 있었다.¹⁾ 일차대전 직후와 이차대전 직후가 그것이며, 현재는 세번

1) 이 책의 제목 『평화의 쟁취』(*Winning the Peace*)는 이차대전 참전을 선언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연설의 한 문구 “우리는... 「승리를 쟁취」(winning the war)할 것이다...”에서 따온 것이다. 이 연설은 미국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 개입정

째로 미국에게 이러한 역할이 부여된 셈이다. 첫번째 시기에 윌슨(Woodrow Wilson)의 노력은 실패했고, 국제질서는 전쟁의 길로 치달았다. 반면, 두번째 시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후 질서를 수립했고, 평화적 질서의 유지에 성공했다. 두 시기에 실패와 성공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

러기는 이를 힘의 정치의 ‘동맹관계에 묶이는데’ 대한 강한 혐오감이라는 미국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 국제적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내적 저항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고립주의 대 국제주의의 전통적 이분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러기의 분석에 따르면, 1919년의 대립은 고립주의자와 자유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간의 대립이 아니었다. 윌슨의 시도를 좌절시킨 루지와 씨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엄격한 의미의 고립주의자나 현실주의자가 아니었다. 씨어도어 루즈벨트 역시 전후질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정학적 조건 하에 4대 강국이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그의 방안은 윌슨 보다 더 이상주의적이었다. 루지 역시 국제연맹의 가입을 기본적으로 찬성했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미국이 원치 않는 의무를 없애고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타협할 수 없는’(irreconcilable) (그러나 윌슨의 정치적 수완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었던) 유보조건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 성격은 고립주의나 현실주의가 아니라 ‘독자주의’(unilateralism)인 것이며, 윌슨의 다자주의적 국제주의를 좌절시킨 것이 바로 이 독자주의인 것이다. 독자주의는 비록 처음에는 국제주의적 목표에서 추구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제주의를 후퇴시키고 고립주의를 가져오게 된다. 다자주의는 단순히 셋 이상의 국가가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국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행동준칙이 존재하며, 구성국들의 이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행동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보가 필연적이고 국가이익의 규정이 공동행동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주의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미국 국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세기 들어 미국외교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곤 했던 것은 바로 독자주의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 러기의 진단이다.

러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성공이 윌슨의 실패로부터 나왔다고 분석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윌슨식의 다자주의를 좌절시킨 미국적 특성을 직시했기 때문에 윌슨의 방안과 씨어도어 루즈벨트의 방안을 절충한 접근을 취했던 것이다. 예컨대 윌슨의 방안과 같이 국제연합과 같은 다자기구를 창설하면서도 이에 상당한 독립적 힘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도

책으로 전환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탈냉전의 국제질서에서도 미국은 국제주의적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목표는 승리의 쟁취가 아닌 평화의 쟁취가 되어야 한다는 러기의 주장을 암시하고 있다.

입함으로써 써어도어 루즈벨트의 지정학적 강대국 중심의 접근을 병행했다. 이러한 절충적, 점진적 접근이 다자주의와 독자주의간의 타협을 유도함으로써 루즈벨트의 전후 구상이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한 러기의 주장은 지정학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구체적이다. 동시에 힘의 정치에서부터 국제제도와 집단안보, 그리고 세계경제질서까지를 분석한다는 점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이다. 현실주의의 단순논리와 좋은 대비가 된다.

러기가 제안하는 평화/안보 방안은 지정학적으로 세가지 접근이 혼용되는 실용적 방안이다. 우선, 장기적 평화가 유지되기 위한 관건은 유럽 대륙에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질서가 유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은 냉전시기에 제도화된 대서양간 안보공동체가 공고화하고 중·동 유럽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NATO를 공고히 하면서 서유럽국가들을 묶어 주고 있는 제도적 연결망들을 동방으로 확대하면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러기는 주장한다. 다음으로, 인접국간의 긴장과 적대적 관계의 가능성이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러기는 낮은 수준에서나마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안보에 관한 정책수준의 대화를 정례화한다든가 국방백서나 연례 군사훈련계획의 상호 교환, 군사훈련의 상호참관 등 쉬운 단계의 협력과 교류를 제도화하여 점차 상호간 군사비와 군사작전에 대한 협의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 협력적 세력균형(cooperative balance)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러기가 제안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국제연합의 평화유지(peace keeping) 기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소규모 국지적 분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기는 강대국간 협조를 기반으로 한 애초의 국제연합의 성격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기가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러기의 방안은 실현성이 낮을 수도 있고, 구체성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세력균형의 현실주의적 논리나 국제협력에 대한 이상주의적 신뢰의 이분법에 치우치지 않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슈 영역을 감안하면서 힘에서 제도에 이르는 다양한 시각을 도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영역으로 러기는 국제경제질서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제경제질서의 혼란과 이에 따른 각국 국내경제의 파국이 국제평화를 해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러기가 갈파했듯이(Ruggie, 1982), 최근 국제경제질서의 문제는 이차대전 직후 수립된 '내재적'(embedded), 혹은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적, 자유방임적 세계화가 급진전하고 있는데 있다. 국내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국제경제의 개방과 안정을 유지하려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거세어지고 국가간 대립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기가 제시하는 대책의 방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내재적 자유주의의 타협’을 모색하는 방안, 즉, 세계화 속의 개방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에 따른 국내 사회집단들의 희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 방안이 외적 개방과 내적 안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아닌지이다. 이에 대해 러기는 구체적이지 못하며, 해답이 없는 듯하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목도되고 있는 국제경제의 불안정, 국제통화금융질서의 혼란, 그리고 국가간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해서도 러기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19세기 정치경제질서의 붕괴가 없이 ‘내재적’ 자유주의의 타협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방안이 대공황과 국제경제질서의 붕괴와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이전에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강점이자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에 대한 고려의 문제이다. 앞에서 러기가 제기했던 미국적 특성과 딜레마에 대해 논의했듯이, 러기의 분석의 기반에는 미국 국내정치적 변수가 깔려 있다. 예컨대 국제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루즈벨트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한 국내정치적 기반을 중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이 힘과 고립의 논리보다는 다자주의의 틀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할 변수는 국내정치상황이며, 국제경제질서의 개방과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관건 역시 국내 정당지지구조의 재편(realignment)이라고 제시된다.

주지하듯이 미국의 정책결정체계는 사회세력의 침투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고 따라서 외교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산출에 국내정치적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 이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와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정치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크게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러기는 적시했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다만, 책의 분량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정치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러기의 이 연구를 시론으로 삼아 미국 국내정치의 재편과 외교정책적 전환의 관계를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후속 연구들이 기대된다. 러기의 틀을 받아들인다면, 장래 국제질서의 운명과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에 관건이 되는 것은 미국적 특성과 다자주의적 기조가 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이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국내정치적 조건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치적 재편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 Gilpin, Robert. 1986.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 _____. 1999. "The Lonely Superpower: The New Dimension of Power." *Foreign Affairs* 78(2). pp.35-50.
- Ikenberry, G. John. 1999.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Persistence of American Postwar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3(3). pp.43-78.
- Krauthammer, Charles. 1990.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70.
- Layne, Christopher. 1993.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17(4).
- Mastanduno, Michael. 1997. "Preserving the Unipolar Moment: Realist Theories and U. 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1(4). pp.49-88.
- Mearsheimer, John J. 1990.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Atlantic Monthly*. August. pp.35-50.
- _____.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1). pp.5-56.
- Ruggie, John Gerard.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pp.379-415.
- _____. 1996. *Winning the Peace: America and World Order in the New E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ed. 1993.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Two Cheers for Clinton'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79(2). pp.63-78.
- Waltz, Kenneth N. 1979.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 _____.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pp.44-79.
- 백창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6-410.
Tel: (02) 880-6332(O). E-mail: cjbaik@snu.ac.kr